

부끄러운 재해통계를 씻자

박 필 수
본협회고문

머릿말

현대의 기업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공해의 고발, 보상을 둘러싼 소비자운동등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서의 사회적 불이익 배제의 책임의 이행을 할 수 없다면 기업은 직접 간접으로도 산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무튼 기업들은 생산 및 배급의 과정을 통하여 크든 작든 간에 기업내에서는 산업재해를 초래하고 기업밖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 공해나 환경오염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결함 상품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옮겨지고 기업의 법적책임이 가중되어 왔다.

두말 할 나위도 없이 기업은 공해의 피해자, 결함상품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책임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현대기업에 과해지고 있는 최대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것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 이외에 어디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책임의식을 생각하면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1. 재해를 보는 시각

오랫동안 노·사·정이 협력하여 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바지런한 활동이 있었기에 산업재해도 점차적으로 감소경향에 진입함으로써 일용 해결의 고리가 풀렸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하여 유독 건설업만은 1990년에 재해가 증가하면서 건설업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와 같은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안전을 완벽하게 유지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손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므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반드시 미연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재해가 발생 할 때마다 사전 예방대책을 못내 아쉬워 하고는 있으나,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좋지 않은 속성이 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재해통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며 책임을 질 때가 온 것이다.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지, 기업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 재해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개인적 요인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업장의 환경인 것이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의 마련이야말로 「안전제일」을 뜻하는 것이며 첫째 요건인 것이다.

문제는 재해예방 업무를 기업의 경영관리에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런 정도의 재해는 별것이 아닌데」라는 등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늦게나마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더욱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2. 안전이념의 확립과 선언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안전이념은 기업의 내부사정이나 외부사정의 변화에 의해서 휘청거린다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이념이 투철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영층의 교체등의 내부사정과 경기의 호황, 불황등의 외부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사정에 따른 편이적인 쪽으로 변하는 등 기업내부의 시책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안전투자의 사정기준을 경기의 호, 불황이나 수익 여하에 따라 호황인 때는 과다한 투자도 허용되며 불황인 때에는 필요한 경비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재해예방 시책에 일관성을 잃어 오히려 재해유발의 원인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안전의 문제는 경기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이념을 확립하고 평소부터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3. 안전이념의 실천

안전이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 올바른 안전운동의 전개는 정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빛나는 “무재해”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무재해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끈기있는 실천에 의해서 달성되며 계속도 가능한 것이다.

안전추진의 사명은 이상적으로는 ① 인간애 ② 인간존중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경제면에서는 건전경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최저하의 조건인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머리속에서 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사책에 명문화하고 사장이 안전이념의 창설을 위해 앞장서야만 한다.

4. 산업안전 관련규정 기준은 작업의 정석

우리가 즐겨하는 바둑이나 장기에는 정석이 있다. 야구등 모든 운동에도 정석은 있다. 정석이란 가장 합리적이고 무리가 없는 정해라는 것이다. 즉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석이라고 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석은 과거의 풍부한 경험과 오랫동안의 실적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여야하는가) 그리고, 책임(의무)과 권한(권리)은 무엇인가를 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법은 노·사 쌍방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주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파악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안전의 규정, 기준등은 말하자면 안전한 작업을 추진하여 가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작업장에서 이 정석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법은 ① 안전을 실천함에 있어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과 ② 금지하지 않으면 재해를 초래한다고 하는 두가지의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작업을 추진함에는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재해를 막는 업무도 꼭 같으며 이 경우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 안전기준이며 그 기준을 구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한 것이 안전규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의 활용여부가 재해예방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다시 말하면 안전성의 확보와 경영층의 활용도의 조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꼬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 론

재해가 일어나면 인적, 재정적으로 유형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 따라서 경영에 큰 타격을 미치는 재해를 막는 기능은 경영에 크게 공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인가라는 자문자답을 하여 보면서 무엇인가 쑥스럽기만 하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그 증상에서 병리 및 임상의학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병의 경향을 판단한다. 이어서 문진,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

여 바른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대부분 재해대책 이라고 하면 사후처리의 대책 즉 재해의 뒤를 쫓는 대책이 많았다.

이것만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연의 방지가 가장 중요하며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이 근원적인 대책이며 효과도 큰 것이다.

사회의 모든 활동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활동은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만약 이 활동에 의해서 재해나 공해가 빈발한다면 목적과 수단을 착각한 본말전도라고 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함무라비(기원전 약 2,000년)법전에 기술된

- ①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그 건설이 잘못되어, 세워진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의 소유자가 사망케 되면 건축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 ②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의 소유자의 자식이 사망하면 건축자의 자식이 죽음을 면할 수 없고
 - ③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의 소유자의 노예가 사망했다면, 건축자는 사망한 노예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노예를 집의 소유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④ 만약 집이 붕괴되어 재산이 파괴되었다면, 건축자는 그 재산이 얼마일지라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건축자의 공사잘못으로 집이 붕괴되었다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집을 재건시켜야 한다.
 - ⑤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지은 후 그 건설이 요구사항과 합치되지 않아 벽이 무너지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벽을 보강해야 한다.
- 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줄인다.